

보도시점

배포이후

배포 2026. 2. 25.(수) 13:30

## 세계한상대회,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

- 황병구 운영위원장, 윤덕창 부위원장...‘민간 주도 체제’ 본격화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(한상경제권 구축)

-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행사인 ‘세계한상대회’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며 새로운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.
  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2월 25일(수) 개최된 제57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이 운영위원장, 윤덕창 아시아태평양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.
- 이번 선출은 지난 1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규정을 개정해, 그동안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.
  - 이에 따라 세계한상대회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따라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, 현지 시장 생태계를 가장 잘 아는 ‘한상’들이 직접 대회를 주도하고 이끄는 민간 자율 운영 체제로 본격 전환하게 됐다.
- 신임 황병구 운영위원장은 “민간 주도 체제의 초대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” 며, “한상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고,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” 고 포부를 밝혔다.
-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이번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은 세계한상대회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”이라며, 정부는 행정적·정책적 지원에 집중하며, 민간이 역량을 충분히

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”고 말했다.

- 한편, 민간 주도로 치러지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는 오는 9월 말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경제지원과	책임자	과 장 이경아 (032-585-3220)
		담당자	사무관 황인용 (032-585-3293)

